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주도에서 가진 장로 단기세미나 한국교회에 새로운 모델 되도록

교회의 목회 방향과 비전의 재검토 '하나님의 목회'에 초점을 두고 3Pr 제시, 3E 구체화

우리교회 당회원들이 지난 8월 15일부터 아세아 방송국 제주 본부(본부장: 민산웅)의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이틀간의 단기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이종윤 목사는 목회철학과 그에 따른 비전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서울교회의 목회 전반은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로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3Pr, 즉 열심있는 기도(Prayer), 성

경적인 말씀(Preaching)전포,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근거로 하되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교육(Education), 전도(Evangelism), 구제(Expenditure)의 3E를 제시하였다.

설립 3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는 이제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150개의 다락방이 각각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여 15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례교인의 수만큼 선교

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될 것과, 교회 예산의 60%를 밖으로 내어 보내는 교회로 한국교회의 고질병인 개교회주의를 탈피함으로써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세미나 기간동안 당회원들은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과 현지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도서교회의 실상을 보기도 하였다.

북방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아 방송국은 이종윤 목사가 1979년과 80년에 중국을 방문하고 라디오 방송의 현황을 조사해 방송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준 바 있어 우리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도 우리교회의 예배 실황을 아세아 방송 전파를 통해 복녘 땅에 실어 보내고 있다.

장로들은 이번 단기 세미나를 가지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아세아방송국에 전자오르간 한대를 기증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주도의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격려했다.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 25일(목)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가지기로 -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 모임을 25일(목) 오전 11시에 우리교회에서 가진다. 강남에 위치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와 교제의 시간으로 엮어질 이날의 모임에는 여전도회 정부회장과 임원은 물론 여전도회 전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번져가는 기도의 불씨 바른 방향으로 정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것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더위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속하여 기도하는 조용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회의 많은 행사와 시대적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한 길은 기도 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소수의 권사들이 불씨가 되어 교회가 바른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 되도록,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모임이 뜻을 모은 이들이 가운데 번져가고 있다.

우리 교회 요람 비디오로 제작 중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제작 중이다. 예배와 교회학교, 선교와 구제 활동, 흥행작전과 가족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새가족에게 영상으로 소개하기 위해 현재 자료 수집과 촬영단계에 있는 이 작품은 우리교회 정동호 집사의 후원으로 E. C. R. 프로덕션(대표: 최희태)에서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

초등부 찬양대 수련회 -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교회학교 초등부 찬양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20일 새벽 6시까지 찬양대 연습실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예배위원으로서의 자세를 훈련하기 위해 가진 이번 수련회에서 어린이 찬양대원들은 하반기 찬양곡 익히기, 피스 정리, 악전 및 발성 연습 등으로 보다 나은 음악적인 소양을 위한 훈련을 쌓았을 뿐 아니라 자체 예배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에 참여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생활을 배웠다.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는 찬양대실의 청소와 정리를 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천국시민으로서의 생활운동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초등부 찬양대는 작년 「93 비전 2000운동」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청잔치 형식의 찬양대 발표회를 가진 바 있는데 올해도 제2회 발표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 중이다.



창세기
강해

순례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 ~ 9절)

이 중 윤 목사

존 번연이 저술한 「천로역정」은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는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일생은 「천로역정」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와 아비, 친척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중도에 하란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기도 했지만 다시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에 대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 장막에 거했다”(히 11:9)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땅을 향한 전진을 멈추고 주저앉았던 하란에서의 머무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의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세상 삶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지혜롭게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삶

그가 순례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첫번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셨다고 했습니다(창15:6). 일생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키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 있었고 하란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7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사람보다 더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벨엘 동편으로 자리를 옮겨 장막을 치니다(8절).

2.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사

람입니다(창12:8).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 무엇도 예배를 대신하거나 예배보다 우선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삶 - 이것이 순례자의 마땅한 절음입니다.

3.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때에는 인생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임을 알고도 장막 생활을 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삶에 대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질 장막이라 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향유할 만한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역하시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히11:10)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있는 삶을 삽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을 위한 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향도 정확합니다. 또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4.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삶

창조의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풍랑과 주변의 견장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요17:17). 말씀에 충만한 개인은 날마다 전진할 수 있고 생명과 희망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흥왕합니다. 교회의 교육과 선교와 구제가 모두 말씀에 기초를 두고 행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입

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는 사람입니다.

5.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가나안 정복과 소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소유나 어떤 기회를 주셨다면 그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을 자처한 아브라함은 세겔땅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한 아브라함은 후일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방백, 선지자, 하나님의 종,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무엇보다 믿음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희년의 기쁨을!

남북이 갈라진 지 49년! 이대로는 안된다. 무력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을 염원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미움과 질시, 그리고 불신의 용어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 평화는 통일의 내용이며 방법이며 전제다. 평화대신 통일을 택한다는 말도 실은 무의미하다. 통일없는 평화는 없기 때문이다.

군비를 강화하고 분단을 지속시키면서 평화공존 운운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을 정말 선언했다면 더 이상 적대관계는 안된다. 적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영제로 받아야 한다.

50년간 빼앗긴 땅, 팔아넘긴 집, 노예로 묶인 몸을 돌려 받고 해방시키는 것을 '희년'이라 한다.

“오,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땅에 희년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 장로단기세미나에 다녀와서

파도타기와 복음

김 광 신(장로)

장로 단기 세미나를 제주 아세아 방송국 본부의 초청을 받아 제주도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삶이 필연이듯이.

한 분 장로님만 회사 일 때문에 못 오신 안타까움을 제외한다면 우리(당회원)끼리의 달콤하고 즐겁고 신나는 만남이었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서울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의 소명 의식에 훨씬 가까워진 시간들이었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 섬리만 집중하여 묵상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번 제주도에서의 시간들은 모든 일상의 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연, 복음, 대화들로 채워질 수 있었으니 큰 행운이었다. 더구나 당회원들의 만남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화합의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감격이었으며 은총이었다.

우리들은 무공해 도시 제주에서 방송선교의 실재를 목격할 수 있었고 도서 교회의 미자립의 실상을 보고 듣는 현장교육을 받았으며 이중운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잡자던 봉사생활에서 깨어 살아 숨쉬며 활동하는 당회원을 세워야 한다는 데에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언젠가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가시화 될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에 박차를 가해보자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 귀한 결단은 협제해수욕장에 갔을 때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던지면서 실감하게 되었다. 파도타기는 아마추어들이 더 재미를 본다고 들었는데 소문대로였다. 밀려오는 파도물결에 타이밍을 맞추어 몸을 맡기면 그렇게 신나고爽快할 수가 없고 파도가 지나간 후의 소낙비같이 부서져 쏟아지는 물세례는 정말 시원함 그 자체였다. 복음도 이 파도타기의 원리를 따라 물결을 거스리지 않고 물결 위에 얹혀져 같이 가면 더욱 신나는 맛이 있고 천국의 극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소수가 공산당을 만들었거니와 적지 않은 17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다면 분명 천국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의 기독교도 역사에 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아쉽게도 나만 홀로 서울로 일찍 돌아와야 하는 사연이 있어서 제주에서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더욱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장로상을 소망하면서 끈끈하고 오밀조밀하게 기도와 대화들로 온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당회원으로서는 서울교회를 봉사하는 한, 우리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해 제주도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

복음이며, 파도와 함께 갑시다!

◆ 숨은 일꾼들을 바라보며

결실에의 축복

오 정 수(장로)

매 주일 아침, 성도들이 오시기 전에 긴 걸레를 들고서 청소하시느라 비지땀을 흘리시는 ○장로님!

따가운 햇빛도, 갑작이 쏟아지는 소나기의 짧은 빗방울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도,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의 천대(?)와 무례한 편견까지도 아랑곳 않고 일년 내내 차량 안 내를 하시며 예배를 돕는 ○집사님!

많은 교회 행사 때마다 이런 저런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화면에 담으려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큰 자금을 들여서까지 동분서주 하시는 ○집사님!

화장실 청소며 예배 후 각 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곳은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집사님!

약 3년 전, 눈물로 무릎을 꿇고 알지 못하는 길을 출발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지내 온 뉘안길에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하늘에 상급을 쌓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손길이 있었음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회를 위해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시면서 자신을 감추시고 수줍어 하시는 분. 때로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도 받곤 하지만 오히려 겸손하고도 보다 온전하게 봉사하라는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신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에까지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성도들로부터의 존경도 받으실 뿐 아니라 준비된 하늘의 상급과 주님으로부터 받아누릴 존영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님의 일을 이루어갑시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뿌린 수고의 씨앗들을 우리와 우리 후손의 때에 결실케 하실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장 9절)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 생활 속의 이야기

시골 정육점 - 저울 눈, 주유소 - 컴퓨터

옛날 시골 정육점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기를 저울에 얹은 주인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저울의 한쪽 끝을 손님이 모르게 살짝 누르고 있었다.

맛은 편에 있는 손님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울 한쪽 끝을 살짝 들어 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합리화를 목표로 발전하고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작금의 세태 속에서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컴퓨터에 의한 일 처리들. 그런데 최근 주유소의 80%가 저울눈(?)을 속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름을 덜 주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컴퓨터를 조작해 놓은 것이다. 똑바로 정당한 것이 옳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듯,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위해 항변하는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소수의 행동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정도다. 과학이 발달하여 일상생활이 점점 과학화 될수록 그것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방법 또한 교묘해지고, 그럼으로써 더 지능화되고 만연해져만가는 사회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과 용기만을 가지고 살기에는 의기소침해질 때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신 뜻과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하셨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레19:36)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므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11:1)

“내가 저희의 소위(거짓 저울로 속인 일)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암8:6)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

• 1994. 9. 5. ~ 11. 21. 매주 월요일
• 강남 YMCA 대강당에서

주제 - 『경건과 교양』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를 개강한다. 이번 학기 주제는 “경건과 교양”으로,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학자요 신앙적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제 1교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일컫는 로마서를 강해형식을 빌어 연구하며, 제 2교시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파스칼의 「팡세」, 밀튼의 「실락원」,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하이데커의 「존재와 시간」,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토

인비의 「역사의 연구」 등의 고전을 연구한다.

10주간의 강의를 통해 동서양의 존재들에 의해 씌어져 세제사의 흐름을 주도해 온 고전을 섭렵함으로써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의 폭을 보다 넓히도록 하려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5일까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서울교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은 식사와 간식준비, 배식, 차량안내, 접수 및 명찰 배부, 좌석 안내, 유인물 배부, 음향조정, 강의 전과 후의 가구 배치 및 강의실 정리 정돈 등의 일에 봉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고3을 위한 기도회」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말, 내게 힘이 되었던 말씀

얼마 지난 것도 아닌데 기억이 회미해서 수험생이던 시절의 일기장을 뒤적여 보았다. 웃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여러 날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왜그리 이유가 많았는지. 물론 그것들은 자꾸만 불안해지고 나약해 지는 내 자신을 향한 위안과 최면의 방법이었다.

작년 여름, 가족수련회를 잇을 수 없다. 보충수업 기간이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같아 할머니 댁에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수련회에 향했다. 돌아오는 길, ‘내가 시험을 못봐서 떨어지면 수련회에 갔었기 때문이라고들 할테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하고 결심을 했다.

지금 나는 원하던 대학에서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1학년생이다. 교회생활에 충실하는 것과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꼭 말해 주고 싶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옛새를 열심히 산 만큼 주일의 안식이 더 의미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와 주일의 봉사에 충실한 만큼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원리는 고3일 때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도, 사회인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공부의 목적과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목적을 잊지 말고 남은 기간 더욱 힘내서 공부하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와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홍진선(대학부 1년)

마치 남의 일처럼 말로만 듣던 고 3이 되고, 그 고3이라는 생활에 익숙해질만하니 입시 100일도 안 남았던 작년 이 때의 기억. 무언지 모르게 뒤에서 날 당기는 느낌. 막상 공부는 되지 않으면서 마음만 괜히 불안한 때.

나는 그 때 ‘내게 만약 멋진 하나님의 일만을 시킨다면 잘 해낼 수 있을텐데, 그리고 매우 기쁠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또 주변 분들도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공부하면 대학이라는 낙원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거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내일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며 살라고 권하고 싶다. 내일 잘되기 위해 오늘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오늘 허락하신 것, 그것 말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같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는 지금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큰 자가 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성하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꾼이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 오늘 내게 부여된 기회, 지금 해야 할 공부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3)

채수풍(대학부 1년)

고 3을 위한 기도회

■ 때 / 1994년 8월 21일(주일) 오전 11시

■ 곳 / 4층 고등부 집회실

■ 대상 / 진학과 취업에 앞둔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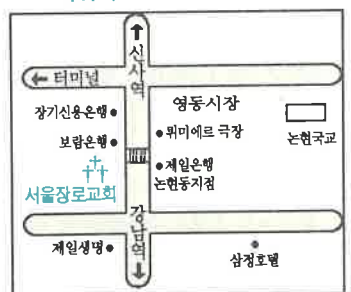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학업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양성되게 하옵소서.
2. 제 6학기목회자세미나를 잘 준비하여 이 일이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게 하옵시며 봉사자들에게 큰 힘을 허락하옵소서.
3. 우리 민족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4.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화평의 마음을 주옵소서.